



국내 생명보험 시장축소와 대응전략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성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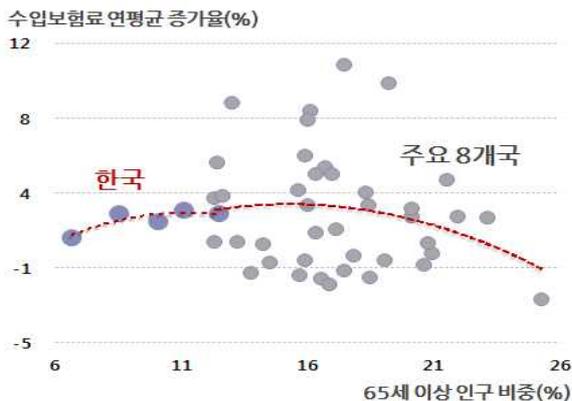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18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우리나라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회사 규모가 비슷하면 상품 포트폴리오도 유사한 특징이 발견됨.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생명보험회사별로 경쟁력을 갖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적정 보유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생명보험회사별로 상품 경쟁력 제고 노력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시장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험연구원(2018)¹⁾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역U자형 관계를 보임(〈그림 1〉 참조)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16% 수준에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체코, 독일, 핀란드, 스페인 사례를 검토한 윤성훈 외(2018)²⁾는 생산가능인구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간의 정(+)의 관계를 발견함(〈그림 1〉 참조)
 -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를 전후하여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 역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며, 보험연구원(2018)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2018~22년 기간 중 수입보험료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1) 보험연구원(2018),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2019년 및 중장기 -」, 보험연구원 10주년 기념 발표 자료
 2) 윤성훈 외(2018),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경영세미나 발표 자료

〈그림 1〉 인구구조 변화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연구원(2018)

생산가능인구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체코)



자료: 윤성훈 외(2018)

■ 이처럼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생명보험시장이 정체되거나 축소될 경우,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M&A가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생존을 위해 M&A를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유계약 확보 필요성이 강조됨³⁾
 - 1996년 진입규제 철폐 이후, 1995년 31개에서 2010년 48개까지 늘어났던 일본 생명보험회사 수는 2015년 41개로 축소됨

■ 우리나라 9개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면, 판매채널의 영향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상품 포트폴리오도 유사한 모습이 발견됨(표 1) 참조

- 첫째, 대형사(A, B, C)의 경우 일반계정 비중이 70% 이하인 반면, 나머지 회사들은 75%를 상회하는 등 특별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변액보험이 방카채널에서 판매될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 둘째, 대형사 간, 중형사(D, E) 간, 소형사(F, G, H, I) 간 상품 비중이 유사함
 - 설계사 채널이 탄탄한 대형사의 경우, 종신 등 사망과 변액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생사혼합 비중이 낮음
 - 중형사는 대형사에 비해 사망과 생사혼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방카채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사는 생사혼합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셋째,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상품을 판매하며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명확하지 않음

3) Suzuki, K.(2011), "Present and future of Japanese life insurance industry", Hoken-Sha

〈표 1〉 2017년 수입보험료 기준 국내 주요 생명보험회사별 상품 비중

(단위: %)

구분	A	B	C	D	E	F	G	H	I
〈일반계정〉	62.7	69.4	65.5	87.4	76.7	86.9	95.3	81.8	78.6
개인보험	61.1	68.7	64.5	87.1	76.7	86.9	94.6	81.8	78.0
- 생존	17.8	16.1	18.3	18.7	14.1	5.4	25.4	8.4	12.9
- 사망	34.9	39.0	39.3	48.0	43.9	30.0	35.2	37.8	18.9
- 생사혼합	8.3	13.6	7.2	20.4	18.8	51.6	34.0	35.6	46.2
2. 단체보험	1.6	0.7	1.0	0.3	0.0	0.0	0.8	0.1	0.6
〈특별계정〉	37.3	30.6	34.5	12.6	23.2	13.1	4.7	18.2	21.4
퇴직연금	17.1	11.0	10.4	7.4	0.0	9.2	0.8	14.0	0.0
2. 변액보험	20.2	19.6	24.1	5.2	23.2	3.8	3.9	4.2	21.4
종신	28.1	30.2	30.8	24.8	37.3	13.8	20.3	21.2	12.4

자료: 각 회사별 업무보고서

■ 그런데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회사 규모별로 상품 포트폴리오가 유사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주력 상품이 회사별로 명확하며, 주력 상품에 특화된 모습임(〈표 2〉 참조)

- 우리나라 대형사의 경우 종신 비중이 30%(수입보험료 기준) 내외이나 日本(니폰), 第一(다이이치), 明治安田(메이지야스다), 住友(스미토모), 三井(미즈이) 등 일본 대형사는 종신보험 비중이 60%(신계약 건수 기준) 이상으로 압도적임⁴⁾
- 중형사인 朝日(아사히)는 적립이율변동형 종신과 정기, 그리고 의료보험 비중이 높으며, 大同(다이도)은 정기보험과 의료보험에 특화되어 있음
- 太陽(타이요)과 富國(후코쿠)은 의료보험과 함께 개호보험의 비중이 높음
- 외국계의 경우 Sony와 Prudential은 회사별로 종신, 의료, 정기, 기타(변액) 등의 비중이 비슷하고, Metlife와 Aflac은 의료의 비중이 높음
- 2011년 기준으로 대형사는 개호보험을 취급하지 않고 중형사와 외국계는 정기부종신과 적립이율형종신을 취급하지 않으나, 2000년대 일본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동력인 의료보험은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관심을 보임
- 우리나라와는 달리 시장이 세분화·전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회사별로 판매채널을 고려하여 소수 상품에 특화·전문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로 생각됨
 - 예를 들면, 第一(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종신 등 전통적인 보장성 보험을 설계사 조직을 통해 판매하

4) 우리나라는 수입보험료 기준이고, 일본은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참고는 가능할 것임

- 고, 방카채널 등에서 판매하기 적합한 단순한 상품 가운데 보장성 상품은 자회사인 Neo First Life 가, 저축성 상품은 자회사인 Dai-ich Frontier Life가 취급하도록 회사 자체를 분리함
- T&D Holdings의 자회사인 大同(다이도)생명과 太陽(타이요)생명의 경우, 각각 중소기업 임직원과 일반가계를 주요 타겟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데 주된 판매채널은 각각 대리점과 설계사임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별 개인보험 상품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2011년)

(단위: %)

구분		종신	정기부 종신	적립이율 변동형 종신	정기	양로	정기부 양로	의료	개호	기타
대 형 사	日本	23.3	33.6	10.4	3.1	9.2	0.9	11.7	-	7.8
	第一	35.7	24.3	-	3.9	8.6	-	19.7	-	7.8
	明治安田	58.2	-	13.8	16.7	1.3	1.0	5.3	-	3.6
	住友	20.4	37.7	16.4	0.9	1.8	0.1	16.9	-	5.8
	三井	22.6	1.7	55.5	1.8	3.0	-	11.1	-	4.3
중 소 형 사	朝日	5.0	-	22.5	20.1	0.4	-	45.9	4.0	2.1
	大同	4.7	-	-	75.3	5.1	-	15.0	-	-
	太陽	0.6	-	-	4.0	13.4	-	25.2	14.4	42.5
	富國	2.4	-	-	0.6	1.6	0.3	57.8	22.2	15.0
외 국 계	Sony	22.6	-	-	13.2	6.5	-	27.6	6.0	24.2
	Prudential	29.5	-	-	20.4	0.4	-	16.4	0.6	33.3
	Metlife	24.0	-	-	6.5	0.9	-	67.4	-	0.7
	Aflac	10.7	-	-	1.9	0.1	-	77.6	-	9.6

자료: 金榕(2013), “規制緩和が生命保険業に与えた影響に関する一考察”, 生命保険論集 第185号

-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시장 축소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규모가 비슷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쟁력이 있는 상품 개발 노력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전문화 또는 M&A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kiri**